

‘경제자유구역’ 퍼주기…난립 우려

광양·인천 등지 외에 추가 지정 추진
‘선택과 집중’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난립할 기미를 보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지난 2004년부터 광양만관,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기 평택·충남 당진, 전북 군산 등에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계획을 밟힌 이후 전국 10여곳에서 경쟁적으로

지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 지정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광양만관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집중력 저하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개정안의 끝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일반경제자유구역’(기존 구역)과 ‘지식경제자유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내·외국인 지식산업 투자기업의 기반시설 등을 조성

정됐지만 남발할 경우 낙후된 전남지역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광양과 부산을 중심으로 자체 물동량을 창출해 컨테이너 부두를 활성화하는 투포트(Two-Port) 시스템 육성을 방해하고 한정된 재원이 중복투자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3월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법 개정안’(이하 구의원 대표 발의)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재경위) 상정에 이어 금융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이 개정안의 끝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일반경제자유구역’(기존 구역)과 ‘지식경제자유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충남도가 이미 신청한 평택·당진(황해경제자유구역), 전북도가 요청한 군산 등 두 곳이 가장 유력하며 추가 희망 지역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수도권 집중화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

광주·전남 등 13개 시·도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참가하는 지역발전협의체가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학교·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민의 열원을 모을 수 있는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베트남 정부 관계자 광주 벤치마킹 온다

광산업·광기술원 등 발전모델로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으로 한국 지역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광주를 방문했다.

베트남 투자기획부(한국의 기획예산처) 응우엔 빙 닉 차관과 수상실 공동 개발국장, 박닌성(市) 응우엔 광 응오 성장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인사 35명이 5일 광주에 도착,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베트남 수도에 접경한 박닌성에 국제민자사업으로 개발 중인 ‘한국전용공단(120만평)’ 및 배후 신도시 조성사업(60만평) 투자설명회를 지난 3일 서울에서 가진 뒤, 지역 산업발전 모델 시찰차 광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6일 한국 광산업 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광산업 단지를 방문한 뒤,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 향후 광주시·박닌성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협의한다. 이어 7일에는 광주과기원과 광주삼성전자 등

을 방문한다.

베트남 박닌성 한국전용공단 조성사업의 국제민자사인 IGS캐피탈·(주)애니셀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와 박닌성 지방정부는 광주 방문을 통해 LED와 광통신 등 광산업, 태양에너지 산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살펴본 뒤, 박닌성 산업발전 방향의 자료로 삼는 학관향후 광주의 교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주)애니셀 임영우 대표는 “이번은 베트남 박닌성과 광주시의 첫 대면이지만 베트남이 최종적으로 광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광주를 자국 지역 산업발전의 모델로 판단, 교류 협력을 파트너로 결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들은 베트남 수도에 접경한 박닌성에 국제민자사업으로 개발 중인 ‘한국전용공단(120만평)’ 및 배후 신도시 조성사업(60만평) 투자설명회를 지난 3일 서울에서 가진 뒤, 지역 산업발전 모델 시찰차 광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6일 한국 광산업 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광산업 단지를 방문한 뒤,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 향후 광주시·박닌성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협의한다. 이어 7일에는

광주과기원과 광주삼성전자 등

/채희종기자 chae@

국민 만평

- 김종우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광주 일보 광고 접수 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사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 예금주(주) 광주일보

• (062) 220-0524
• 직통: (062) 227-9600
• FAX: 227-9500

상업지매매

• 전남 신도청 정문앞
(일반상업지 140평2필지)
• 속박시설, 유통업소부지
• 즉시건축가능(설수요자환경)
매매상담: 011-330-9365

합병 및 주권제 출공고

2007년 8월 3일 주식회사 구리공기(‘김’), 주식회사 고려페브릭풀건설(‘김’)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 회사가 합병하여 ‘김’은 ‘김’이 권리 및 의무 입체를 승계하고 ‘김’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재권자는 본 광고 기재일 이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실기회기증 ‘김’은 삼기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과 합병하는 희생기록에 결의하였으나 ‘김’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그 소유권 전부를 이 광고 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6일

‘김’ 주식회사 구리공사
전남 영광군 신례면 김곡리 38-68번지
대표이사 김 철
“을” 주식회사 고려페브릭풀건설
전남 해금군 송지면 신령리 712-3번지
대표이사 정 현 미

분묘 개장 공고(2차)

창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양고자 및 관리인은 광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광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창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분묘소재지	지번	분묘기수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산131-1	38
	산159	3
	산66-1	2
	산66-2	6
	산67	2
	산69	3
	산73-1	29
	산73-2	8
	산77	3
	산78	3
	산79-1	2
	산79-3	6
	산79-4	24
	산81-2	3
	산82-1	18
	산82-2	1
	산83	4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산129	13
	산130	4
계		315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골프장 조성)

3. 공고기간 : 2007년 7월 6일 ~ (최초공고 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광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입의 개장 납골당(유골)안치

5. 개장장소 : 인허가 된 납골당(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납골당(유골)안치

6. 신고처 : 에이치케이레저 주식회사, 061-324-7200

7. 신고방법 : 연고자는 연고권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분묘개장 공고 후 누락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광고로 같은

2007년 8월 6일

공고인 에이치케이레저주식회사
대행업체 (유)코뚜레기업

고시원 매매

●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입니다.

● 5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지85평

● 6층건물 매매가 7억5천

용지85평

● 6층건물 매매가 8억5천

용지85평

● 7층건물 매매가 9억5천

용지85평

● 8층건물 매매가 10억5천

용지85평

● 9층건물 매매가 11억5천

용지85평

● 10층건물 매매가 12억5천

용지85평

● 11층건물 매매가 13억5천

용지85평

● 12층건물 매매가 14억5천

용지85평

● 13층건물 매매가 15억5천

용지85평

● 14층건물 매매가 16억5천

용지85평

● 15층건물 매매가 17억5천

용지85평

● 16층건물 매매가 18억5천

용지85평

● 17층건물 매매가 19억5천

용지85평

● 18층건물 매매가 20억5천

용지85평

● 19층건물 매매가 21억5천

용지85평

● 20층건물 매매가 22억5천

용지85평

● 21층건물 매매가 23억5천

용지85평

● 22층건물 매매가 24억5천

용지85평